

# KIA, 오늘부터 반격의 홈 5연전

## “에이스 브룩스 승리를 부탁해”



키움과 2연전 시작 ... 28일부터 KT 위즈와 주말 3연전 중위권 따라잡고 반전의 여름 맞이 이번주 승리가 중요 9번 등판 중 7번 QS ... 확실한 선발 브룩스에 큰 기대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브룩스가 2021시즌 명운을 건 5연전을 연다. 도쿄올림픽 예비엔트리 선수들의 코로나19 예방 집중 여파로 25일 '임시 휴업'했던 프로야구가 26일 다시 순위 경쟁에 나선다. KIA는 안방에서 키움과 2연전을 시작한다. 28일부터는 KT 위즈를 상대로 역시 홈에서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중위권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악몽의 5월을 뒤로하고 반전의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 이번 5연전의 결과가 중요하다. KIA는 브룩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애초 로테이션상으로는 맹덴의 순서지만 가장 확실한 카드인 브룩스가 먼저 나온다.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결과지만 올 시즌에도 브룩스는 KIA의 가장 확실한 선발이다. 현재 KIA 선발진에서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는 브룩스와 맹덴 두 명밖에 없다. 브룩스가 9경기에

나와 56이닝, 8경기에 나온 맹덴이 44.2이닝을 던졌다.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있지만 수확은 좋지 못하다. 4월 20일 잠실 LG전에서 6이닝 1실점(1자책점)으로 거둔 승리가 올 시즌 브룩스의 유일한 승리다. 지난 시즌 23경기에서 11승 4패를 기록했지만 올 시즌 벌써 4패가 쌓였다. 아직 브룩스의 위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 지난 시즌 1.02였던 이닝당 출루허용률은 올 시즌 1.52로 뛰어올랐다. 안타도 많이 맞고 볼넷도 늘었다. 지난해 브룩스의 피안타율은 0.238이었지만 올 시즌에는 0.317로 치솟았다. 삼진/탈삼진 비율도 5.41에서 2.69로 떨어졌다.

지난 시즌 130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는 동안 24개의 볼넷에 그쳤지만 올 시즌에는 35개의 탈삼진과 13개의 볼넷을 기록하고 있다. 운도 따르지 않고 있다. 9번의 등판 중 7번을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로 마무리했지만, 1승만 남았다. 브룩스는 4월 4일 두산에 상대로 한 시즌 첫 등판에서 7.2이닝 2실점 호투에도 1-4 경기의 패전 투수가 됐다. 4월 14일 롯데전에서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고, 팀도 3-2 승리를 거뒀지만 박준표의 볼론세이브로 브룩스의 승리가 사라졌다. 4월 25일 삼성전에서는 7이닝 2실점(1자책점)으로 분전하고도 팀이 오승환의 300세이브 제물이 되는 걸 지켜봐야 했다.

KT와 상대한 지난 1일에는 올 시즌 가장 많은 9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6이닝 1실점을 만들었지만 팀의 영봉패로 시즌 3패째를 안았다. 지난 13일 LG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도 6.2이닝 4실점(3자책점)으로 퀄리티스타트를 끊고도 역시 패전투수가 됐다. 최근 등판인 19일 SSG전에서는 6.2이닝 2실점으로 등판을 마무리했지만 이어 등판한 이준영과 장형식이 연속 볼넷으로 밀어내기 점수를 주면서, 브룩스의 실점이 올라갔고 승리도 무산됐다. 팀은 물론 브룩스에게 승리가 간절하다. 이를 휴식으로 에너지를 채운 KIA가 브룩스를 앞세워 승리로 한 주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키움에서는 빠른 공을 가진 안우진이 선발로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BO, 내년부터 대학 2학년생도 드래프트 참가

2022년부터 대학 2학년 재학생도 KBO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KBO가 25일 열린 2021년 제6차 이사회에서 열린 드래프트 제도 및 신인드래프트 참가신청 규약 신설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도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해 2023년부터 프로선수로 뛠 수 있다. 엘리 드래프트는 미국 프로야구 MLB와 프로농구 NBA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대학야구연맹도 4년제 대학 등록 선수 감소에 따른 대학 야구 위축에 따라 수차례 검토를 요청했다. 시행시기는 2022년으로 4년제 및 3년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는 드래프트에 참가해, 2023년 신인으로 뛠 수 있다. 엘리 드래프트를 통해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그해 KBO리그 팀과 계약해야 한다. 고교 졸업 예정 연도에 지명을 받았지만, 구단과 계약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선수는 엘리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다. 신인드래프트 참가 규약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선수가 자동으로 지명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KBO에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명 대상이 된

다. 신인드래프트 참가 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포함해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본인의 동의하에 제출하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이다. 또 참가신청서를 통해 선수의 해외 진출 또는 대학 진학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구단의 지명권 상실도 막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1년 드래프트부터 바로 시행된다. 한편 신인드래프트 참가를 원하는 선수는 지명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기재하고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선수가 지명 구단과 계약을 거부할 경우 2년 경과 후 다시 지명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고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 선수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년이 지난 뒤 지명에 참가할 수 있다. 또 신청서는 제출 후 철회할 수 없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성 선수로 계약할 수 없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올해 1차 지명일을 8월 23일로 확정했다. 2차 지명은 9월 13일에 이뤄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김광현, 잘 던지고도 2연패 교체 거부했다 투런 홈런 맞아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2연패를 당했다. 김광현은 25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개러티드 레이트 필드에서 열린 2021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화이트삭스와의 인더그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 5.2이닝 동안 5피안타(1피홈런) 3볼넷 5탈삼진 3실점 했다. 김광현은 팀이 1-0으로 앞선 6회말에도 마운드에 올라 2사 1루까지 투구를 이어갔다. 김광현의 시즌 첫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까지 아웃카운트 1개만을 남긴 상황에서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이 마운드를 방문했다. 김광현은 교체 거부하며 투구 의지를 드러냈으나 앤드루 본에게 2볼에서 3구째 체인지업을 던졌다가 좌월 역전 투런 홈런을 얻어맞았다. 김광현은 다음 타자 루리 가르시아에게 볼넷을 내주고 팀이 1-2로 뒤진 6회말 2사 1루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바뀐 투수 폰세 데 레옹이 승계 주자의 득점을 허용해 김광현의 자책점은 3점으로 불어났다. 세인트루이스는 화이트삭스에 1-5로 패했다. 세인트루이스는 2연패에 빠졌고, 김광현(1승 2패)도 2연패를 당했다. 김광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2.73에서 3.09로 치솟았다. /연합뉴스

## 1분 남기고 '극장골' ... 땅을 치는 광주FC

5월 3번째 막판 역전골 허용 '1부 잔류' 위해 '1분' 지켜야 최하위 탈출을 위해 '1분'이 광주FC의 화두가 됐다. 광주는 '악몽의 5월'을 보내고 있다. 5월 5경기의 성적은 1무 4패. 강등 후보로 언급되는 '라이벌' 수원FC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2패를 남겼다.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이 광주에는 뼈아프다. 5월 1일 울산전 패배는 차라리 시원한 패배였다. 차원이 다른 선수층을 앞세운 울산의 공세에 0-2로 졌지만, 나머지 패배는 선제골을 넣고도 기록한 패배였다. 세 경기 모두 경기 종료를 앞두고 '역전골'을 내주면서 패배의 충격은 더 컸다. 11일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는 전반 33분 나온 헤이스의 선제골에도 상대의 라스·무릴로 '외국인 듀오'의 막판 공세에 패자가 됐다. 후반 40분까지는 1-0 승자였지만, 후반 41분 라스의 도움을 받은 무릴로가 동점을 넣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후반 44분에는 반대로 무릴로의 도움을 받은 라스가 '극장골'을 장식하면서 광주에 패배를 안겨줬다. 이어진 15일 인천 원정에서는 부상에서 돌아온 엄원상이 복귀 두 경기 만에 골을 터뜨리고도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후반 시작 3분 만에 무고사에게

일격을 당했고, 역시 후반 44분에 송시우가 광주 골대를 가르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광주의 선제골 뒤 극장골 패배 공식은 지난 23일 수원삼성과의 홈경기에서도 나왔다. 전반 6분 한희훈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지만, 전반 15분 동점을 내줬다. 후반전은 전쟁 같았다. 두 팀이 페널티킥으로 한 골씩 주고받았고, 수원이 3-2로 앞선 후반 추가 시간에도 다시 광주가 김종우의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귀한 승점을 더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 진행된 마지막 수위 공격에서 광주의 파울이 나왔고, 페널티킥이 바로 앞에서 수원의 프리킥이 선언됐다. 앞서 한 차례 광주 골키퍼 윤보상의 슈퍼세이브에 아쉬움을 삼켰던 수원 이기제가 이번에는 더 강렬한 슈팅으로 바로 골대를 겨냥했다. 결과는 수원의 '극장골'이 됐다. '1분'을 지키지 못해서 남아있던 승점 1점까지 쟁기지 못하면서 광주(4승2무11패·승점 14)는 최하위에서 고전하고 있다. 사실상 11위인 강원FC(3승8무5패·승점 17)와 승점은 3점 차다. 득점에서는 강원에 앞선 만큼 3개의 '극장골'을 막았다더라면 두 팀의 순위는 달라졌을 것이다. 광주가 '1부 잔류'를 위해 '1분'을 고만해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